

조선~일제강점기 정음 서화가 작품 공개

정음시립박물관, 정음 서화실 개관... '무형유산 놀이터' 테마전도 동시 개최

정음시립박물관은 제2상설전시실을 '정음 서화실'로 새롭게 단장해 현재까지 수집해 온 작품을 23일부터 차례대로 공개한다. 서화실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정음 출신이거나 정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서화가와 그들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화가는 석지 채용신(1850~1941), 토립 김종현(1912~1999), 장암 이삼만(1770~1847), 문연 김진민(1912~1991), 동초 김석근(1877~1953)의 작품들이다. 채용신은 1920년대 신태인 육리에 '체서각 도화소'라는 공방을 마련해 활발한 활동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에는 1910년 정음 칠보면 화개헌(和介軒) 김직술(1850~1920)의 집에 머물면서 그린 것으로 알려진 칠광도(1910년 추정), 송정심현도(1910년 추정)와 함께 1924년에 그린 최치원 초상이 먼저 전시된다.



정음시립박물관은 제2상설전시실을 '정음 서화실'로 새롭게 단장해 현재까지 수집해 온 작품을 23일부터 차례대로 공개한다.

이와 함께 전북의 대표적인 한국 화가로 알려진 김종현이 금강산의 주요 명소를 10폭의 병풍에 담은 작품도 공개된다. 서예가로도 정음 부부실 출생이며, 조선 후기 3대 명필로 알려진 이삼만의 서첩류와 일제강점기 정음의 대표적인 서화가인 태인 출신 김석근과 김진민의 병풍 글씨와 현관, 서첩이 공개된다. 특히 여류 서예가 김진민의 나지른 10폭 병풍은 현재 전해오는 김진민의 작품 중 가장 뛰어난 명작으로 평가된다. 작품 전시 외에도 채용신의 작품인 칠광도를 수채화공로 표현한 미디어 아트 공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시 공간, 소장품 검색 공간 등 모든 계층이 정음 서화를 이해할 수 있게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 또 시립박물관은 어린이 체험형 테마전 '무

형유산 놀이터'를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69일간 개최한다. 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디지털 기술로 재탄생한 탈춤과 활쏘기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탈춤의 기본 동작을 익히고, 궁수가 되보는 체험을 하며 우리나라와 정음의 무형유산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이외에도 탈 가면 포토존, 아크릴 컬러링 그리기, 탈 컬러링 가면 등의 체험 공간을 마련해 여름 방학 기간에 어린이들이 박물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무형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이학수 시장은 "즐거움 방학 기간에 어린이들이 박물관 테마 전시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무형유산의 의미를 배우길 바란다"며 "새롭게 단장한 정음 서화실에서 공개되는 정음 서화 작품을 통해 정음 서화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박물관은 휴관일 월요일과 매년 1월 1일, 설·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매일(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전시와 관람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시립박물관(063-530-6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음=김대환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8월 공연 다채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공모 선정작 5건 중 4건 공연

익산예술의전당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으로 5건의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공모사업이다. 문예회관·공연단체·예술인들과 협력해 공연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취약지역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예술의전당은 8월에 △송소희·두번째달·오단해의 모던민요 △진호의 책방 △유지걸인형극 삐노키오 △창작오페라 녹두 등 4건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12월에는 연극 '아하! 강아지똥'을 선보인다.

먼저 '송소희·두번째달·오단해의 모던민요'는 8월 2일 오후 7시 30분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경기민요 소리꾼 송소희와 국악 청년 오단해, 퓨전밴드 두번째달이 한 무대에서 태평기와 군밤타령, 시랑가 등 친숙한 민요와 판소리, 가요 등을 연주한다.

두 번째 공연 '진호의 책방'은 8월 11일 오후 2시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JTBC 프로그램 '슈퍼밴드'에서 우승하며 대중에게 알려진 헬리스트 홍진호와 국내 최고의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피아니스트 박상욱이 시를 주제로 연주회를 진행한다.

세 번째 공연 '뮤지컬 인형극 삐노키오'는 8월 23~24일 이틀간 익산예술의전당 중공연장(습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동



화 피노키오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인형디자이너 지미 데이비스와 협업해 제작한 수준 높은 인형과 환상적인 영상, 다채로운 음악으로 그려낸 뮤지컬 인형극이다.

이어 '창작오페라 녹두'는 130주년을 맞이하는 동화농민혁명을 재조명한 작품으로 8월 31일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으로 '연극 아하! 강아지똥'은 12월 7일 익산예술의전당 중공연장(습리문화예술회관)에서 2회 공연한다. 국민작가 권정생의 베스트셀러 '강아지똥'의 감동을 무대에 옮긴 움직임은 그림동화로 2001년 초연 이후 함께 살아가는 다정한 마음을 공유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지원 관장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 공연을 준비했다"며 "가족들과 친구, 지인들과 문화예술을 감상하며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전화(063-859-3254)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교양총서 제6권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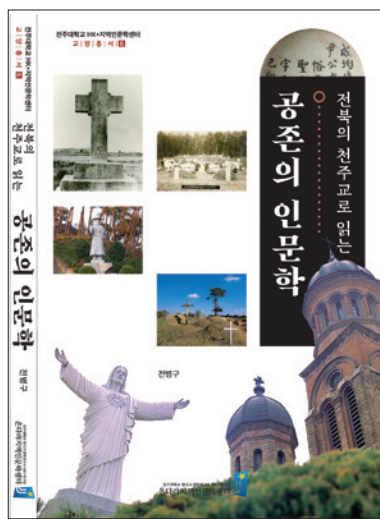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서정화)는 교양총서 제6권 '전북의 천주교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의 교양총서는 지역의 문화와 인문 자산을 발굴해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전북의 천주교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은 전북 지역 천주교의 초기 역사와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천주교 성지(聖址) 설명에 사진을 곁들여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이 책은 전통성당, 초남이, 숲정이, 치명자산 외에도 김제순교 성지, 치명자산 성지, 전주옥 순교지, 나바위 성지, 서천교 순교터, 초록바위 순교터, 여산순교 성지, 전호성지 등

을 다루고 있다. 서정화 센터장은 "전북은 유교 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이 어우러진 지역"이라며 "이 책을 통해 전북의 근대 역사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자인 전병구 연구위원은 전주대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주성심여고 역사교사,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고전문화연구원과 전주가톨릭순교현양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HK+연구단(www.jjac.kr/hk)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63-220-3201~3, 320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전북 동부지역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진안군은 지난 19일 진안역사박물관에서 '전북 동부지역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시·군 광역행정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공동으로 지원한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이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의 추진 방향 및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지자체 담당 부서 관계자, 전북특별자치도 담당 관계자를 비롯해 용역사 및 공동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용역을 맡은 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은 해당 지역의 후백제 및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왕의 역사·고고 기록과 유·무형유산 등을 바탕으로 그 현황과 보존상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후백제 역사문화유산의 시간적·공간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고유한 특성과 역사



성을 바탕으로 통합 경관 형성 및 도시 간의 유기성, 역사문화유산의 현황을 분석해 후백제 문화유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각 지자체에 남아있는 후백제 문화유산이 새로이 발굴되어 후백제의 역사가 재조명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유산을 개발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진안군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